

# 남도지역 출토복식의 현황과 특징 연구

안 명 숙

광주대학교 디자인학부 의상디자인전공

## Study on the present condition and characteristic of the costumes excavated in Chonnam area

Myung-Sook Ahn

Division of Design, Kwangju University

(2000. 2. 25 접수)

### Abstract

It is possible to examine the costume of Chosun era that tombs excavated in chonnam area, have contained various kinds of clothes.

There are six tombs in which costumes have been excavated in Chonnam provinces.

One(Go un) is tomb of the early years of Chosun Dynasty and the other tombs is those of the middle years of Chosun Dynasty(16~17 century).

There were many kinds of Po which was called Jickryung, Danryung, Chullik, Dappo, Janguui, So-changui etc, and contained chechori, skirts, under-trousers in tombs. But there are not see Kuui, Dopo that excavated in other area. Chullik showed the features of winkle, sleeves and the ratio of length. Dappo was only to be seen in a Go un's grave.

Men's chechori collar(kit) was called Mokpankit in all, and woman's chechori collar was called Kalkit or Tangkokit. The length of chechori was different according to the times.

Most trousers are types of underwear and also there are Sapok(斜幅) tousers, open trousers.

The characteristics of excavated costumes are not regional feature but trend of the times. The costumes excavated in Chonnam area are similiar to those excavated in other area at the same times.

**Key words:** southern part of korea, excavated costume, Po, chechori, trousers:

남도지역, 출토복식, 포, 저고리, 바지

## I. 머리말

복식은 우리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도구로서 단순한 기능적 수단뿐만 아니라 사상적·사회적 요소까지 포함한 정신문화의 한 표본이며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거울이다. 그 지역적 특성과 역사적인 배경을 무시한 복식 하나만의 문화는 존재할 수 없으며, 문화적 기반을 토대로 하는 복식만이 그 의미를 다하는 것이다.

남도지역이란 광주를 포함한 전라남도 지역을 의미하며 옛부터 예향의 도시로 꼽혀 온 지역으로 북

식예술 또한 화려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남도의 복식을 연구하는 것은 남도의 문화를 함께 공유하는 의미를 갖는다. 특히 임진왜란에서부터 근대 5·18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중심에서 다져진 남도지역의 예술과 종교, 애국과 저항의식 등은 복식문화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

남도지역의 출토복식은 일부 연고가 없는 무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후손이 관리 중이어서 출토지는 물론 문종의 족보에 의해서 피장자의 생·졸(生·卒)연대로 시대추정이 가능하여 타 출토복식 연구의 비교 기준자료가 된다. 더욱이 이 시대의 출토복식은 서울보다는 지방에서 출토되고 있으며, 그 피장자 역시 일반 반가(班家)가 주를 이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도지역에서 출토된 조선시대의 복식들을 조사하여 시대적·지역적 분포 현황을 알아보고, 분묘에서 출토된 복식 실태를 조사한 후 각 복식의 특징을 알아보고자 한다.

## II. 남도지역 출토복식의 현황

### 1. 시대적 분포

남도지역의 조선시대에 해당되는 분묘 가운데 복식이 출토된 것은 6기이다. 6기 출토묘의 출토연대는 조선시대 초기부터 중기에 해당되는 15·16·17세기에 걸쳐 있다.

출토복식은 조선시대 중기인 16, 17세기의 것이 가장 많으나, 최근들어 15세기<sup>1)</sup> 것도 출토되고 있다.

고운의 생존시기(1479~1530)가 족보를 통해 확인

되었고, 복식의 보존상태가 양호하여 연대추정이 용이하였다.

김덕령장군의 출토복식 또한 피장자의 생존시기(1567~1596)가 정확하게 파악되어 복식유물의 연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

김함(1568~1598)도 김덕령장군과 같은 시기에 살아 복식을 통한 공통점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장흥 임씨 출토복식은 피장자가 여자인 관계로 족보나 다른 기록을 통해 생존시기를 살필 수 없었으며, 단지 김덕령장군의 질부였고 비슷한 시기에 생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이었다.

경주 이씨 또한 정확한 생존연대는 알 수 없으나 출토복식인 長衣 소매에서 창호지에 쓴 납채단자를 통해 출생연대는 알 수 없으나 사망연대가 1684년임을 알 수 있다.

김귀진 참판은 출토경위를 몰라 정확한 연대추정은 불가능하나 후손들과 출토 당시 관계자들의 조사에 의하면 지금으로부터 360~370년 전의 의복으로 17세기 중반에 해당한다. 남도지역에서 출토된 복식의 시대에 따른 품목별 종류를 살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 2. 지역적 분포

남도는 자연적·사회적·역사적 동질성에 의거하여 문화권을 형성하고 전승시켰다<sup>2)</sup>. 특히 남도의 역사적·지리적·정치적 요인은 문화의 한 단면인 복식에 의해 재현되었고, 복식은 다시 남도의 한 문화권으로 용화되었다. 따라서 복식유물 전승지역의 문

<표 1> 남도지역 출토복식의 현황

시대	종류 출토묘	종류														
		단령	직령	담호	철릭	소창의	장의	저고리	바지	치마	버선	모자	신	이불	기타	계
조선초기 (1392~1550)	고운	1	2	3	6	·	·	·	5	·	2	2		2	·	23
조선중기 (1550~1700)	김덕령	·	4	·	2	·	·	1	2	·	1	·	·	1	·	11
	김함	·	3	·	·	·	·	2	2	·	1	1	1	1	·	11
	장흥임씨	·	·	·	1	·	1	3	2	·	1	·	1	1	·	10
	경주이씨	·	·	·	·	2	3	6	2	3	2	1	1	·	4	24
	김귀진	·	3	·	·	·	·	1	2	·	1	·	1	·	2	10
	계	1	12	3	9	2	4	13	15	3	8	4	4	5	6	89

화적 요인들을 이해하는 것은 당시 시대상을 반영하는 복식의 특성을 연구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 생각된다.

그 중에서도 출토복식은 과거의 묘제(墓制)가 가족무덤제로 구성되고, 무덤의 위치가 생존시 거주지 부근이라고 생각할 때 피장자가 생존시 거주지역에서 착용한 복식으로 유추할 수 있다<sup>3)</sup>. 출토복식은 발굴지역을 파악함과 동시에 그 지역의 문화적 특성에 대한 접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출토복식의 지역적 분포는 <표 2>를 참고하여 보면 광주광역시 4분묘, 전남 영암군에서 2분묘이다. 많은 남도지역 중 왜 두 곳에만 집중되어 출토복식이 발굴되는 지도 앞으로 지역적인 측면에서 깊은 연구가 되어야 할 것 같다.

### III. 남도지역 출토복식의 실태

남도지역에서 출토된 복식의 묘주들은 남자는 김덕령장군<sup>4)</sup>, 김합<sup>5)</sup>, 고운<sup>6)</sup>, 김귀진이 있고, 여자는 장흥 임씨<sup>7)</sup>와 경주 이씨가 있다.

6개의 출토묘에서 비교적 많은 수량의 의복과 다양한 종류의 복식이 출토되어, 이 지역의 복식상황을 아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남도지역의 출토복식 현황을 연대 순서대로 살펴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 1. 고운 출토복식<sup>8)</sup>

고운 분묘는 1986년에 발굴되었으나 문중에서 출토유물을 보관해 오다가 2000년 3월 광주시립민속박물관에 기증함으로써 구체적인 조사가 시작되었다.

문중에서 출토된 복식을 밀폐된 공간에 잘 보관

해 출토된 지 14년이 지난 2000년에 조사가 시작되었으나 상당히 양호한 상태로 있었다. 그러나 조사과정 중 보존처리가 안된 상태에서 조사를 함으로 인해 직물들이 손상되어 처음 보았을 때보다 많이 훼손된 상태로 보존처리가 시작되었다.

출토복식은 총 23점으로 직령 2, 단령 1, 철릭 6, 담호 3, 바지 5, 버선 2, 모자 2, 이불 2점 등이고, 기타 부속물(만장, 관·곽, 명정, 자리, 칠성판 등) 20여 점이 있다.

출토복식은 고운의 생졸연대가 1479~1530년에 해당하므로 조선 초기의 복식임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즉 이중으로 된 깃, 고리를 부착한 소형 쌍고름, 대형무, 직선형 배래, 이중섶<sup>9)</sup> 등이 그 시대의 양상을 말해준다. 출토 복식으로는 남자의 것으로 바지, 저고리 등의 기본복식은 없었고 직령, 단령, 철릭, 담호 등 포 종류가 여러 점 출토되었다. 바지·저고리는 출토 당시 문중 어른<sup>10)</sup>들의 말에 의하면 다시 입혀서 이장(移葬)시 사용되었다고 한다.

직령은 형태가 크며, 솜을 두었으나 누비지는 얇았고, 솜이 밀리지 않도록 군데 군데 바늘땀을 떠 주었다. 장의형 직령은 직령에 비해 크기도 조금씩 작았으며 삼각형무가 달렸고 이중섶이며, 겹깃은 이중 칼깃이고 안깃은 이중 목판깃이다. 직령과 마찬가지로 솜을 두었고 고정시침이 되어 있다.

단령(사진 1)은 소재의 무명 홀단령으로 총길이는 142cm, 화장 127.5cm의 약간 곡선을 이루지만 거의 직배래 형태이다. 깃너비는 2.7cm 정도로 조선 중기 이후의 단령에 비해 좁은 편이고, 이 시기의 단령들의 깃너비는 2~4cm 내외로 좁은 것이 다른 출토복식에서도 나타나는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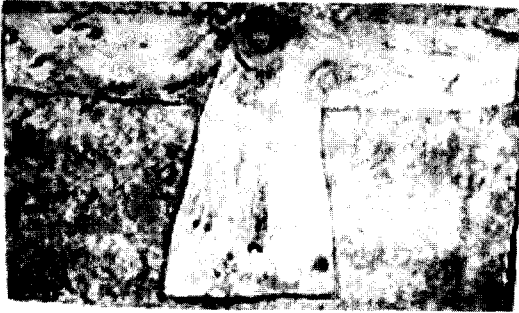
철릭은 홀·겹·솜철릭이 출토되었고, 소재는 무

<표 2> 남도지역 출토복식 현황

	묘주명	생졸연대	성별	출토지	출토년월일	소장지	비고
1	고운	1479~1530	남	광주시 압촌동(鴨村洞)	1986. 9	광주민속박물관	
2	김덕령장군	1567~1596	남	광주시 금곡동 배재(梨峙)	1974. 9	총장사	중요민속자료 111
3	김합	1568~1598	남	전남 영암군 鶴山面 鶴鷄里	1985. 4	단국대박물관	중요민속자료 209
4	장흥임씨	1590년대	여	광주시 금곡동 배재(梨峙)	1971. 6	광주민속박물관	중요민속자료 112
5	경주이씨	?~1684	여	전남 영암군 西湖面 長川里	1984.12	"	
6	김귀진	?	남	광주시 북구 용봉동 반룡마을		"	

〈표 3〉 조선초기 출토단령의 깃너비(cm)

출토묘	고운	김홍조	정응두	이언응	홍계강	원주 변씨	벽진 이씨
깃너비	2.7	2.8(평균)	2	3	① 1.6 ② 3.5	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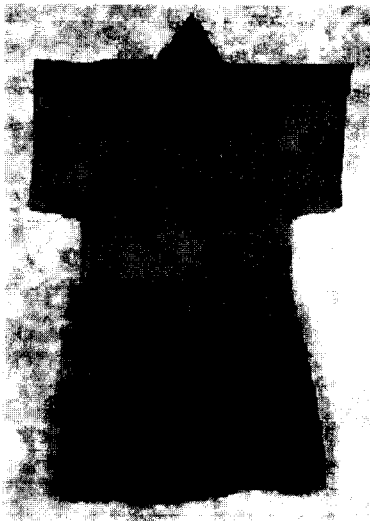


[사진 1] 무명출단령

명·모시·명주가 사용되었다. 첩릭의 총길이는 116~127cm 내외이고, 상의의 길이가 하상보다 약 20cm 내외가 더 길다. 첩릭 하상의 주름은 왼편주름이고 주름의 간격은 고운 것은 0.1cm 간격으로 잡혀진 것도 있으나 대부분은 0.3cm 정도로 잡혀 있다.

담호(사진 2)는 소매의 길이가 14cm 정도로 짧은 반소매 포이다. 깃은 이중깃이며 옆의 무를 이용한 주름은 큰주름과 작은 주름을 각 하나씩 잡았다.

포 종류 12점 외에도 속바지 5, 모자 2, 버선 2족,



[사진 2] 명주겹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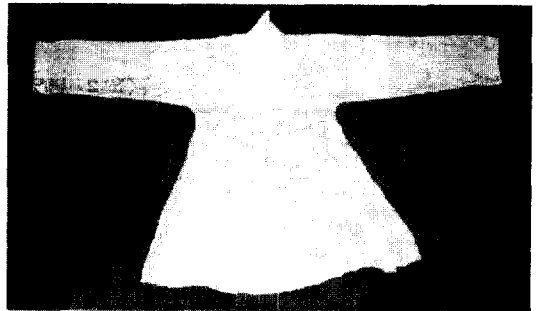
이불 2점 등이 출토되었다. 홑바지 4점은 모두 단속곳 형태이나, 가랑이가 셋 달린 솜바지가 있어 이 당시 바지 구성의 특징을 보여 주고있다. 이와 비슷한 시기의 양평출토(楊平出土) 홍계강 배위(洪係江配位)<sup>11)</sup>, 칠곡출토(漆谷出土) 벽진이씨 배위(碧珍李氏配位)<sup>12)</sup> 출토복식에서도 비슷한 형태가 동시대에 출토된 것으로 보아 이 당시 유행했던 바지 양식인 듯하다.

## 2. 김덕령장군 출토복식

김덕령장군 의복은 1974년 묘소 이장시 발견된 것으로, 의복은 저고리 1, 첩릭 2, 직령 4, 바지 2, 버선 1족, 이불 1점 등 총 11점과 기타 10여 점 이상의 포(布)<sup>13)</sup> 출토되었다. 저고리와 직령 몇 점은 현재까지 보존상태가 양호하여 그 형태가 확인되는 것이 있기도 하나, 직령 1개와 첩릭 1, 바지 등은 의복의 형태만 남아 있을 뿐 자세한 구조를 알기가 어렵다.

저고리는 솜을 둔 무명으로 만들었고 기운 흔적이 있으나 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옷길이가 69.5cm로 꽤 길어 엉덩이 위까지 오나 옆트임은 없었다.

첩릭은 2벌 중 1벌은 솜만 남아있고 위·아래가 분리되어 있어 원형을 알기 어려우나, 두겹게 솜이 있는 것을 보아 겨울용으로 사용된 것 같다. 다른 한 벌은 여름용으로 흰색 모시(사진 3)로 만들었



[사진 3] 모시첩릭

며 양쪽 소매 모두를 뿔 수 있게 만든 유동적인 형태이다. 첼릭의 하상길이가 상의보다 20cm 정도 길어 조선 초기의 것과 대조적인 양상을 보인다.

직령은 겹옷, 솜을 든 옷, 솜을 두어 누빈 옷 등 다양한 계절에 착용했던 것이 골고루 출토되었다. 칼깃 직령은 2점 모두 총길이 107cm, 화장 85cm 정도로 크기가 비슷하다. 하나는 흰색 무명에 솜을 얇게 두고 0.8cm 간격으로 곱게 골누비가 되어 있고 품과 옆길에 대는 무가 매우 넓다(사진 4). 무는 삼각형무로 옆트임도 없고 주름도 잡혀있지 않다. 목판깃 직령은 총길이 117cm, 화장 84cm이다. 직선배래이고 무가 넓으며, 겹섶이 이중으로 넓다.

바지는 2점 모두 솜만 남아 있어서 정확한 구조를 알 수 없으나, 형태를 보아 좁은 바지에 앞·뒤 트임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 시기 남자바지의 새로운 양식을 보여 주는 것 같다. 앞으로 출토바지에 대한 깊은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김덕령 장군의 출토복식은 현재 충장사에 전시되어 있으며, 상태가 좋지 않아 의복의 원형을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으므로 원형을 찾는 작업이 시급하다 생각된다. 또한 복식명칭과 의복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고, 해체된 옷들의 일부가 원형을 찾지 못하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출토 당시의 상황을 참고로 하여 보수 처리를 해서 전시하거나 아니면 복원하여 후손에게 보여주었으면 한다.

### 3. 김함 출토복식

1985년 전남 영암군에서 출토되어 현재 단국대학

교 민속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김해 김씨(金海 金氏) 문중에서 선산의 묘성(墓城)을 재정리 확장하기 위하여 이장하던 중에 발견되었고 시신대신 나무로 시신형상을 만들어 염습한 상태로 출토되었다. 묘주가 해전(海戰)에서 전사하여 시신을 찾지 못하자 나무시신으로 대신하여 장례를 모신 특수한 경우이다<sup>14)</sup>

출토복식으로는 長衣 형태의 직령 3, 저고리 2, 내친고 2, 이불 1, 모자 1, 버선 1족, 신 1쌍 등으로 총 11점이다. 보공품으로 사용된 의복류로 수량이 적고 빈약하다. 입관 중이었기 때문에 간략한 장례로 행하여졌으리라 추측된다.

장의 형태의 직령은 모두 3점으로 상태가 모두 좋으며, 모두 목판깃이며 겹섶은 이중섶이고 안섶은 두개는 단섶, 하나는 이중섶으로 되어 있다. 두 개는 4cm 간격으로 누비었으며, 하나는 솜만 두었다. 명주솜누비직령(사진 5)은 태수(苔袖)와 고름을 상색(緋色) 명주로 달았다.

저고리는 2점 모두 솜저고리로 형태에 차이가 있다. 한 점은 훼손되어 깃과 태수가 없으며, 다른 한 점은(사진 6) 아청색(鴉青色)으로 길이가 짧으며, 깃은 목판깃이고 화장에 비해 품이 넓고 소매길어도 짧다.

### 4. 장흥 임씨 출토복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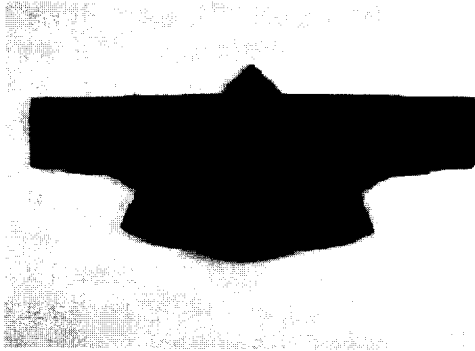
장흥 임씨는 김덕령장군의 질부(姪婦)로 김덕령장군과 같은 시대에 생존했고, 1971년 묘소 이장 때 출토되었다. 출토의복으로는 저고리 2, 적삼 1, 첼릭



[사진 4] 무명솜누비직령



[사진 5] 명주솜누비직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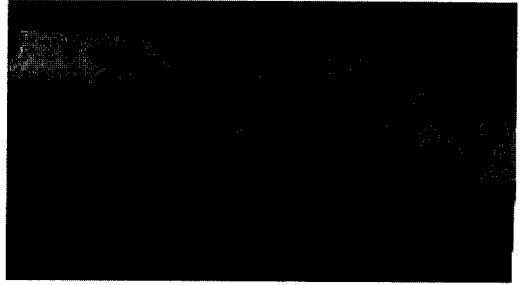
[사진 6] 무명솜저고리

1, 장의 1, 속바지 2, 버선 1족, 미투리 1쌍, 이불 1등으로 총 10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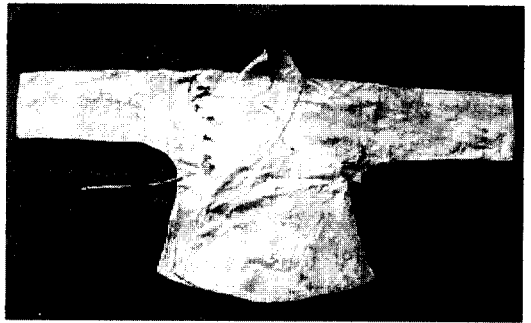
철릭(사진 7)은 무명홀철릭으로 등의 오염자국과 몇 군데 천을 대고 꿰맨 것을 보아 평상시 입던 옷을 보공한 것으로 보인다. 직선형 등바대를 대었고, 왼쪽 소매를 뿔 수 있게 되어 6개의 매듭단추를 달았다. 여밈은 쌍미리 매듭단추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또한 철릭이 여자 출토묘에서 발굴됨으로써 여성의 철릭 사용이 있었던 가에 의문이 간다. 장속(葬俗)인지 아니면 본인이 입었던 것인지는 더 많은 출토복식의 발굴과 함께 앞으로 더 연구가 되어야 할 것 같다.

장의는 안감과 솜만 남아 있고 깃의 형태도 알 수 없어 정확한 형태를 파악하기 힘들다. 평상시 입던 것으로 겹감과 안감을 분리하고 솜채로 세탁해서 사용한 것 같고, 세탁 후 돌아가서 다시 꿰매지 않고 안감과 솜만이 있는 채로 그대로 놓은 것이 아닌가 한다.

저고리는 두 점으로 한 점은 무명으로 누볐고, 한 점은 무명 홀저고리이다. 누빈 저고리는 4cm 정도로 누비었고, 기운 흔적이 많으며, 길이도 72cm로 상당히 길으나 옆트임은 없다. 홀저고리(사진 8)는 길이는 62cm 이고, 양 옆에 17.5cm 정도의 트임이 있다. 소매 끝을 한쪽은 가진세를 사용하고, 다른 한쪽은 가진세도 아니나 시접없이 가진세처럼 그대로 두었다. 바지가 2 점 있는데 바지 2 개의 앞뒤가 다르다. 출토시 현대의 바지처럼 여밈이 없이 입혀져 있어 시신에서 벗겨내기 위해 솜바지와 속바지를



[사진 7] 무명홀철릭



[사진 8] 무명홀저고리

함께 잘랐다. 솜바지는 입어서 큰사폭 오른쪽이 잘리었으나 속바지는 입어서 큰사폭 왼쪽이 잘리었다. 이는 염습시 앞·뒤 구분 없이 그냥 입힌 것이 아닌가 싶다.

## 5. 경주 이씨 출토복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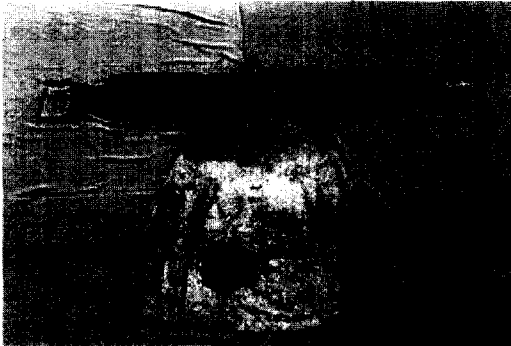
경주 이씨 출토유물은 전남 영암군 장천리 야산에 소재한 천안 김씨(天安 金氏) 묘역의 분묘 이장시 출토되어 현재 광주민속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전택(全澤)의 부인인 경주 이씨의 생존연대는 출토 당시 입고 있던 長衣 소매에서 가로 세로 크기가 각 40cm인 창호지에 쓴 납채단자를 통해 출생연대는 알 수 없으나 사망연대가 1684년임을 알 수 있다<sup>5)</sup>.

출토복식으로는 장의 3, 소창의 2, 저고리 6, 속곳 1, 속바지 1, 치마 3, 버선 2족, 신 1쌍, 모자 1, 기타 4점 등으로 총 24점이 있다. 여자의 복식으로 다양한 종류의 일반복식들이 출토되었다. 17세기 후반의 것으로 보존상태도 양호하고 저고리·장의의 길이, 길의 형태, 깃모양 등을 통해 볼 때 이 시대 대표적인 의복의 공통된 특징들을 나타낸다.

장의는 모두 3점으로 문단, 명주, 무명을 사용한 겹·숨장의가 출토되었다. 세 점 모두 겹섬은 이중섬이고, 안섬은 두 점은 이중섬 한 점은 단섬으로 되어 있다. 색상도 화려해 남색, 자주색, 청색 등이 사용되었다. 세 점 모두 거들지의 구성이 특이해 거들지를 쪽 피면(사진 9) 소매의 길이가 상당히 길어지고 거들지를 반 접어서 넣으면 원래의 소매길이가 된다. (접은 상태의 화장: 75cm, 쪽 핀 상태의 화장: 89.5cm) 또한 장의의 길과 깃에 봉황문과 화문이 화려하게 직조되어 있다.

소창의가 두 점 출토되었으며 기운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보아 오랫동안 입었던 옷인 것 같다. 소창의는 앞길 2장, 뒷길 1장으로 만든 옷으로 무가 없으며, 양 옆은 긴 트임이 있다. 두 점 모두 무명 겹·안감에 숨을 두었고 수구·옆선·섬·밑단 등에 숨을 고정하는 시침을 하였고, 길이 약간 옆으로 휘어져 당의선같은 모양이다.

저고리는 6점으로 명주 숨저고리(사진 10)가 3점이고, 모시(홀)·무명(겹·숨)으로 만든 저고리가 3점 있다. 깃의 모양으로 보면 당코깃 저고리가 2점, 칼깃(등근깃) 저고리가 4점이며, 저고리의 길이가



[사진 9] 문단겹장의



[사진 10] 명주숨저고리

짧고 아담한 모양이다.

## 6. 김귀진 출토복식

김귀진 참판(중8품) 묘 이장시 출토되어 후손 김성수(11대손) 신고에 의해 광주시립민속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정확한 생졸연대는 알 수 없고 대략 360~370년 전의 것으로 출토 당시 복식에 핏가루가 많이 묻어 있었으며, 형태가 많이 손상되어 완형(完形)을 알아보기가 힘들 정도이다.

출토복식으로는 직령 3, 적삼 1, 바지 2, 버선 1족, 신 1쌍, 기타 2점으로 총 10점이 있다. 파손이 많이 되었지만 직령도 형태가 다른 2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아 앞으로 좀 더 자세한 연구가 되어야 할 것 같다.

출토복식 모두 소재의 무명으로 만들어졌으며, 배의 굵기도 굵은 편으로 다른 출토복식에 비해 옷감이나 바느질법 등이 정교하지 못했다.

## IV. 남도지역 출토복식의 특징

각 출토복식의 형태적 특징을 중심으로 특징적인 부분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포류

포는 직령, 단령, 두루마기, 철릭, 답호, 장의, 소창의 등 다양한 종류가 출토되었으나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보았을 때 액주음, 도포, 구의 등이 출토되지 않았다.

철릭은 초기의 것에는 이중형 칼깃이나 중기 이후의 것에는 단일깃으로 등근깃이 나타난다. 고운의 것은 이중형 칼깃이나 김덕령장군과 장흥임씨의 것은 등근깃이다. 출토된 포 중에 철릭이 가장 많이 출토되었을 뿐만 아니라 철릭의 특징인 주름과 소매, 상의와 하상의 길이 변화에 대한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 주었다. 주름의 표현기법으로 주름의 간격도 0.1~0.3cm, 1.5cm 정도로 다양하고, 맞주름도 있었다. 소매도 양쪽 모두 분리되는 것과 한쪽 소매만 분리되는 것, 분리되지 않는 것 등이 모두 출토되었다. 상의와 하상의 길이도 초기에 해당하는 고운의 것은 상의가 20cm 정도 길었는데 비해 중기에

해당하는 김덕령장군의 것은 반대로 하상이 20cm 정도 더 길어 시대적인 변화를 확실하게 나타내었다.

담호는 고운의 출토복식에서만 발굴되었으며 고름을 직접 옷감에 붙이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고리를 활용해 매듭식으로 매는 고리부착형 고름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고름은 조선 초기에 사용되었던 고름 양식으로 단령에서도 보인다. 이 지역 외에 영주에서 출토된 김흥조 분묘<sup>10)</sup>에서도 이러한 고름의 사용 예가 보인다.

여자의 포는 장흥임씨와 경주이씨의 분묘에서 장의가 출토되었다. 장의의 조선 중기 형태적 특징은 길이는 120cm 내외이며, 외형은 길너비가 좁아지는 대신 쇄과 무자락이 넓어져 전체적인 외관이 진동과 품 등은 좁아지면서, 아랫자락이 넓어지는 형태이다. 소매 끝에 삼수(橡袖) 형식의 거들지 형태가 붙어있어 접어 입을 수 있게 되었다.

## 2. 저고리

저고리는 남자의 것은 모두 목판깃 저고리이고, 여자의 것은 칼깃과 당코깃 저고리가 있다. 남자의 저고리는 초기나 중기에 별 차이없이 목판깃에 직선길 이었다. 여자 저고리 중 16세기 말인 장흥임씨의 칼깃저고리는 직선길과 사선길이 공존했고, 직선길 저고리가 사선길 저고리보다 길이가 10cm 정도 더 길었다. 17세기에 해당하는 경주이씨 저고리는 사선길이며 당코깃과 칼깃이 공존했다. 이를 통해 저고리 길이는 장흥임씨의 저고리가 67cm, 경주이씨의 것이 46.8cm 인 것으로 보아 후기로 갈수록 짧아졌음도 알 수 있었고, 같은 시기에는 직선길이 사선길보다 저고리 길이가 더 길었음도 장흥임씨의 저고리에서 알 수 있었다. 또한 당코깃이 조선 중기에 등장했음도 알 수 있었다.

## 3. 바지

바지는 모든 출토묘에서 공통적으로 출토되었으며 대부분이 단속곳 형태이나 장흥 임씨의 바지는 사폭(斜幅)바지이다. 또한 김덕령장군의 바지는 솜만 남아있어 대략적인 형태밖에 알 수 없지만 일자형 바지로 그 당시의 바지 유형과는 다른 것 같다.

앞으로 출토바지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시대적 규명이 되어야 할 것 같다. 바지길이는 73~90cm 정도이고, 허리둘레는 87~99cm 정도이며 바지폭수도 대부분이 4폭이다. 주름은 중앙에 맞주름을 잡고 양쪽에 각각 2~3개씩의 주름을 잡았다. 바지의 무는 초기의 것은 허리에서부터 가랑이까지 연결된 긴 사다리꼴무이고, 중기는 삼각형무가 나타나며 개당고(開袴)형 바지도 나타난다.

남도지역 복식유물을 살펴보았듯이 남도지역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보기보다는 이 시대는 지역적 특징보다 시대적 특성이 강해 다른 지역에서 출토된 복식들과 비교해 볼 때 시대에 따른 공통적인 양상을 나타낸다고 보겠다. 예를 들면 고운의 것은 조선 초기에 해당하는 김흥조, 정은, 이인손 등의 출토복식과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고, 그 외의 김덕령, 김함, 장흥임씨, 경주이씨 등은 조선 중기의 타 출토복식이 갖고 있는 특징과 유사함을 볼 수 있었다.

## V. 맺음말

출토복식들의 출토과정은 관 내부의 상황을 전혀 예기치 못한 상태에서 비전문가인 후손 또는 인부인 남자들에 의해서 작업이 이루어진다. 출토품이 발견되는 경우 의류는 한 곳에 모아 태우거나 묻기도 하며 시신은 상태에 따라 한지와 마포 등으로 감아 새로 마련된 관에 넣어 이장하는 것이 상례이다. 이 과정에서 출토품들이 마구 다루어져 전문가들에게 연락되었을 때는 이미 의류들을 한 곳에 모아놓아 남녀 구별이 어렵고, 착용 상태 즉 염습(斂襲)상태를 볼 수가 없어 그 당시의 착용 방법 등을 볼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대부분의 출토복식이 출토 후 세척 및 유성오염 제거 과정을 거쳐 보존처리는 하였으나 보수작업이 되지 않아 여건이 되는 한 빠른 시일 내에 보수작업을 하여 원형을 복구시킬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이 지역에서 소장하고 있는 많은 복식들이 헤어지고, 떨어져 나간 상태의 것이 상당히 많다.

출토복식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학계에서도 필요시 이 지역의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출토



는 되었으나 어디에 소장되어 있고, 무엇이 있는 지 체계적인 자료가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보고서식으로 자료화하여 학계에 알려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상을 통해 남도지역의 출토복식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복식이 출토된 조선시대 분묘는 6기가 있었고, 모두 피장자의 생졸연대를 알 수 있어 복식의 시대적 구분이 가능했다.

남도지역 출토복식의 특징은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큰 차이는 없었다. 복식의 종류와 형태 및 봉재상의 기법 등이 거의 동시대적인 것이었다.

시대적으로도 한 시대 것이 집중되어 출토된 것이 아니므로 조선 전·중기로 분산되어 출토되어 시대 전반에 걸친 일반복식의 양상을 알 수 있었다. 출토복식이 16세기에 집중된 것에 비해 최근들어 조선 전기의 것이 출토된 예가 몇 곳 있었는데, 금번 고운 출토묘를 통해 이 지역에서도 조선 전기의 출토복식을 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출토된 복식의 종류로는 직령, 단령, 철릭, 담호, 장의, 소창의 등의 다양한 포 종류와 저고리, 치마, 바지, 속곳류 등으로 대부분이 조선시대의 양식을 알 수 있는 것들이 출토되었다. 다른 지역에서는 갑옷 등의 구의(裘衣)도 있었으나 이 지역에서는 김덕령장군의 복식이 출토되었음에도 구의 등은 없고 모두 일반복식만이 출토된 것도 특징적이다. 또한 형태 면에 있어서도 길의 형태, 깃과 소매의 모양, 쇄와 무의 형태, 철릭 주름의 특징 등 각 시대를 특징짓는 양식이 조선 전기의 것과 중기의 것이 뚜렷한 차이를 보여 일반복식 연구에 도움이 되었다.

## 참 고 문 헌

- 1) 안명숙, 하천고운 출토유물, 광주민속박물관, p. 38, 2000.
- 2) 최덕원, 남도의 민속문화, 밀알, p. 352, 1995.
- 3) 장인우, 조선중기 출토복식 중 일반복식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논문, p. 52, 1995.
- 4) 김동욱, 총장사 김덕령장군 두루마기의 복식사적 고찰, 「김향문화」·김향문화재단, 1981.
- 5) 박성실, 조선초기 출토복식, 세종대학교 박사논문, 1992.
- 6) 광주민속박물관, 하천고운 출토유물, 2000.
- 7) 문화재관리국, 중요민속자료 조사보고서, p. 38, 1979.
- 8) 안명숙·김은정, 광주출토 장택고씨 복식유물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4(7), 85-93, 2000.
- 9) 안명숙, 출토복식의 종류 및 특징, 「출토유물」, 광주시립민속박물관, 44-45, 2000.
- 10) 고씨문중제보자: 고재학, 고동주, 고영두, 고경주, 고기주 씨, 2000. 3 광주시 남구 대촌동 압촌마을 송학산 아래 송산재에서 문중대표들과 이장시의 상황 인터뷰.
- 11) 박성실, 전개논문, 337.
- 12) 박성실, 전개논문, 241.
- 13) 광주광역시 문화예술과, 총장사에서 광주대학교 안명숙교수·문화예술과 직원·총장사 직원과 함께 2000. 9. 22 재조사.
- 14) 박성실, 전개논문, 388.
- 15) 권영숙의 1인, 조선 초·중기 여자장의제도, 부산대학교 가정대학 연구보고 21집, 126, 1995.
- 16) 이은주, 16세기 전기 단령의 구성법 일례, 복식문화학회, 136-137, 1998.